

# 민실위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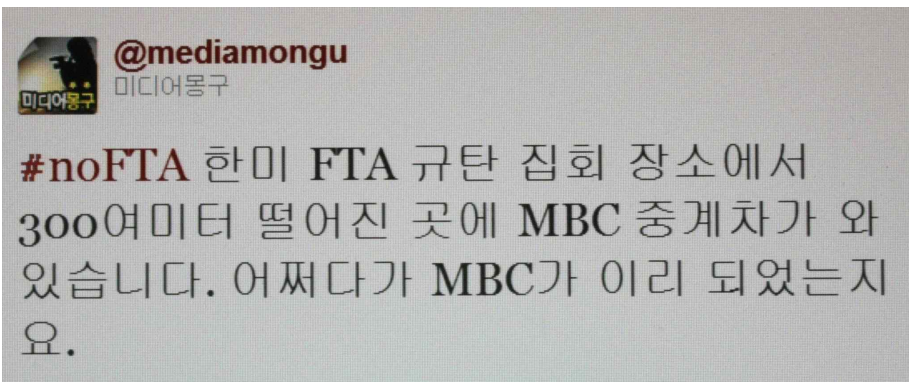
2011년 11월 29일(화)

## 한미FTA보도가 욕 먹은 이유는?

한미FTA 반대 시위 취재를 나갔던 기자들이 시위 참가자들로부터 취재를 거부당하고 있다. '방송에 내 보내지도 않을 거면서 뭐 하러 취재하느냐'는 항변이다. 현장 취재를 나갔던 기자들은 이런 상황이 '참담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민실위는 기자들의 의견을 모아, 이번 한미FTA 보도가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짚어본다. 아울러 조합은 빠른 시일 내에 공정방송협의회를 개최해, 이번 보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 한미FTA 반대 집회, 세 번이나 '물 먹었다'

<뉴스데스크>의 한미FTA보도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된 22일, <뉴스데스크>는 국회 밖에서 벌어진 집회 소식을 빠뜨렸다. 당시 현장에는 취재기자가 무려 5명, 카메라기자가 3명이나 있었는데도 말이다. MBC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하는 것을 봤던 집회 참가자들은 메인뉴스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나가지 않는 것에 분노했다. 트위터에서는 <뉴스데스크>를 비난하는 의견들이 넘쳐났다. 반면 타사는 중계차를 동원해 현장의 소식을 전했다. 이를 두고 시청자들이 두 뉴스를 비교하면서 폄평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기자들끼리 하는 말로 '물 먹은 것'이나 다름없다.



23일, <뉴스데스크>는 집회 소식을 리포트로 전하기는 했다. 하지만 이 집회 때문에 MBC는 시청자들로부터 더 큰 욕을 먹어야 했다. 이날 경찰은 물대포를 동원해 시위대를 해산했다. <뉴스데스크>가 '중부지방에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는 소식을 전한 바로 그날이었다.

다음 날인 24일, 인권위는 물론 한나라당에서도 경찰의 물대포 사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선 기자들은 '영하한파에 물대포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리포트를 발제했다. 하지만 일선 기자들의 요청은 묵살됐다. 반면 타사는 우리 기자들이 발제한 것과 똑같은 제목으로 리포트를 내보냈다. 시청자들은 이를 또 비교하며 폄평했다. 또 '알면서도 물 먹은' 상황이 됐다.

휴일을 맞아 야5당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린 26일, 타사는 역시 중계차를 동원해 현장

소식을 전했다. 반면 이날 <뉴스데스크>는 '스키장 시즌 개막...전국이 월동 준비'를 톱뉴스로 보도했다. 집회 소식은 단신으로도 전하지 않았다. <뉴스데스크>만 본다면 한미FTA 갈등은 일단락되고, 전국이 평온을 되찾은 것처럼 보인다. 중요한 스트레이트 기사를 '세 번째로 물 먹으면서' 생긴 왜곡이다. 시청자들이 욕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 ■<최루탄> <서장 폭행> '우대' vs <비공개 날치기> <물대포> '홀대'

<뉴스데스크>는 김선동 의원이 벌인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사건을 크게 다뤘다. 비준안이 통과된 22일은 물론, 23일에도 두 개의 리포트로 자세하게 소식을 전했다. 최루탄 리포트는 큐시트의 앞자리를 꿰찼고, 한미FTA 피해 관련 리포트는 뉴스 맨 뒷자리로 밀려 났다.

<뉴스데스크>는 경찰서장 폭행 논란도 이틀 연속으로 보도했다. 먼저 27일, 경찰과 범국민본부 양측의 주장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하지만 비슷한 형식과 내용의 리포트가 '집중취재' 타이틀을 달고 28일 또 방송됐다. 하지만 '시위대 진입 직전 경찰서장의 갑작스런 정복 착용'처럼 정작 이날 추가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자작극 의혹'들은 빠진 채로 보도됐다.



결과적으로 FTA반대 진영에 불리한 최루탄 사건과 경찰서장 폭행 논란은 부각된 반면, 여당과 정부에 불리한 사안은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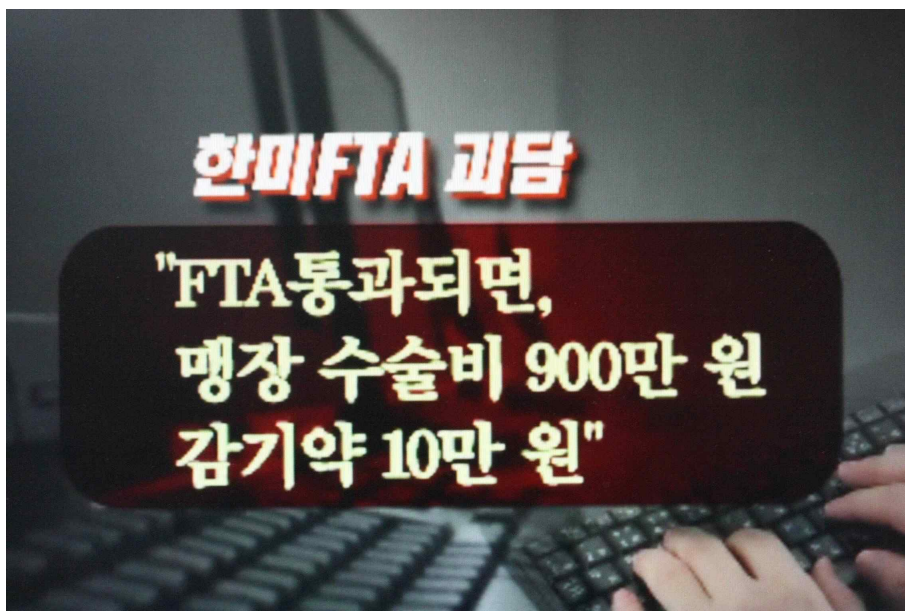
이번 날치기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코앞에 다가온 내년 총선을 의식해, 기자들의 출입을 막은 채 꼭꼭 숨어서 날치기를 결행했다. 하지만 몸싸움 과정에서 방청석으로 향하는 출입문 유리가 깨졌고, 덕분에 기자들은 '역사의 기록자'로서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뉴스데스크>는 한나라당의 행태를 단 한 번도 비판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런 사실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또 과거 야당 의원의 의사당 쇠망치 사건은 상기시키면서도, MB정권 들어 다섯 번이나 날치를 한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은 없었다. 앞서 밝힌 것처럼 물대포 논란도 리포트 하지 않아 비난을 자초했다.

## 언제까지 뒷북 보도만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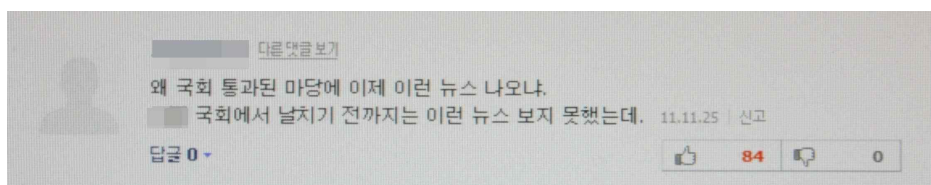
<뉴스데스크>는 10월 28일과 31일, 두 번에 걸쳐, 모두 6분 넘게 할애해 ISD, 즉 투자자 국가 간 소송제도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당시 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을 때 시의적절하게 보도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한미FTA의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전혀 보도가 없었다. <뉴스데스크>는 11월 7일 “한미 FTA가 체결되면 맹장 수술비로 900만원이 들고, 감기약이 10만원이 된다.”는 식의 이른바 FTA 괴담을 퍼뜨리면 처벌하겠다.”는 검찰의 입장을 보도했다.



그런데 이 것은 과연 괴담인가? 아닌가? 그 해답의 힌트는 11월 23일과 25일에 각각 방송된 ‘FTA 발효, 약값 상승으로 이어지나...진실은?’, ‘FTA와 건강보험제도 붕괴 소문, 진실은?’ 리포트에서 찾을 수 있다. 정말 한미FTA가 체결되면 의료비와 약값이 대폭 인상되는 것인지, 아니면 터무니없이 과장된 루머에 불과한 것인지를 MBC 기자들이 이 리포트에서 따져 본 것이다. 진실을 알기에는 리포트 분량이 너무 짧다는 한계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점에서 평가 받을만한 기사들이다.

그런데 이 리포트들은 모두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된 다음에 나왔다. 농업 분야 피해, 공공요금 상승 우려 등에 대한 분석 리포트들도 마찬가지이다. 포털 사이트에 리포트가 오르자 네티즌들은 ‘지금 와서 이런 리포트 하면 뭐 하나’는 식의 댓글을 달았다. 또 이 리포트들은 모두 지역 시청자들은 볼 수 없는 뉴스 후반부에 배치된 것도 공통점이다.



이런 점을 보면 결국 보도국 지도부들이 이들 리포트를 ‘면피성’으로만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공영방송은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 깊이 있는 취재로 정확한 판단 근거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해, 여론형성에 이바

지해야 한다.’는 것은 뽕양계 먼지 쌓인 언론학 교과서에만 나오는 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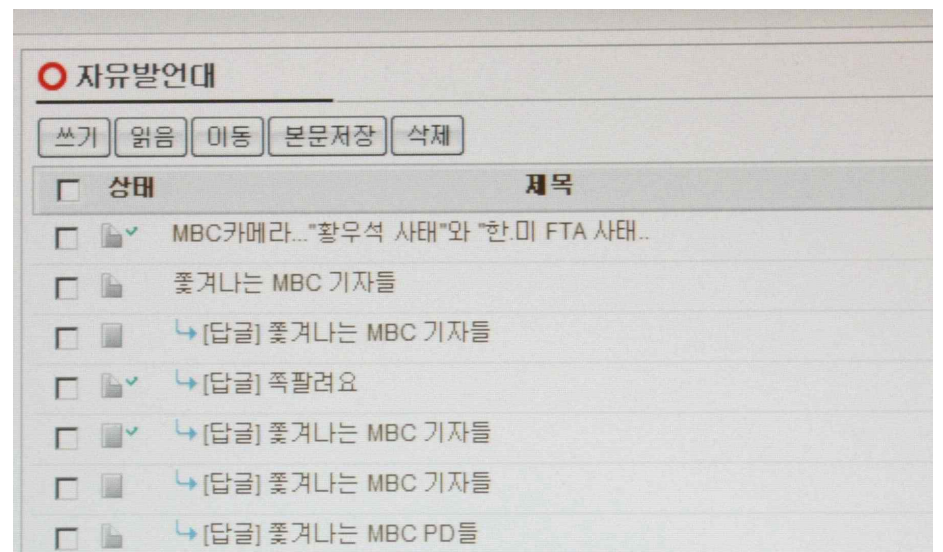
## ‘할 말 못하는’ 언론사?

예전 뉴스시스템에는 익명 게시판이 있었다. 조직의 의사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언로를 띄워준다는 명분이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인신공격성 글들이 올라오면서 익명게시판은 폐쇄됐다. 당시 선배들은 ‘기자가 실명으로 비판할 배포가 없으면 기자가 아니다’라며 말했다.

하지만 이게 어찌된 일인가? 기자가 뉴스시스템에 (당연히) 실명으로 FTA보도를 비판하는 의견을 밝혔는데, 보도국 선배들이 이 글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일이 벌어졌다.

27일 보도국의 한 카메라 기자는 한미FTA 집회 현장에서 시위 참가자들로부터 취재 거부를 당하면서 느꼈던 참담한 심정을 뉴스 게시판에 올렸다. 그런데 보도국장은 이 기자의 상급자인 부장을 불러 질책했고, 부장은 이 기자에게 두 번이나 전화를 걸어 글을 내리라고 지시했다. ‘뉴스 게시판은 업무에 관한 글을 올리는 곳으로 개인적인 주장을 올리기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 부장의 말이었다. 궤변이다.

‘한미FTA 보도가 잘못 나가고 있어 현장 취재에 어려움이 크다, 결국 제대로 보도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정말로 MBC 보도국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말인가?



해당 기자는 결국 뉴스시스템 게시판에서 글을 내리기는 했지만, 회사 인트라넷 자유발언대에 같은 글을 올렸다. 이 글에 대해 많은 조합원들이 공감을 표시하는 댓글을 달고 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들에게 비위에 맞는 말만 하는 조직은 죽은 조직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내부의 비판을 억누르는 언론사가 어떻게 언론사라 할 수 있겠는가?

조합은 게시판 글 삭제 압력 건 등을 포함해, 한미FTA 보도에 대한 공정방송협의회 개최를 회사에 요구할 것이며, 이 자리를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